

일본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거점 강화

- 2014년 일본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4% 증가, 해외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확충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재, 전기·IT 분야가 많고, 해외 지역으로서는 동남아와 미국이 인기

□ '14년도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조사 결과

- 닛케이신문이 실시한 2014년도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64개 일본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은 전년대비 4% 증가한 11조 6256억 엔으로 5년 연속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엔지니어링이 13.3% 증가, 새로운 전력 기반이나 교통 시스템에 적극 투자
 - 최근 침체되었던 전기·IT 분야의 투자도 회복 추세
- 1~3위는 전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도요타자동차, 혼다, 닛산자동차 등 자동차 기업이 차지
 - 도요타자동차는 과거 최대인 9,600억 엔을 투자, '14.11~12월경 판매할 수소자동차 「미라이(Mirai)」의 코스트 삭감을 위한 부품개발을 추진
 - 혼다, 닛산자동차도 수소자동차개발과 안전운전 지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력
- 작년보다 40%의 연구개발비를 증액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에너지, 환경, 교통수송 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특히 발전기와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에 주력하고 발전소용 가스터빈의 고효율화나 온난화가스의 배출이 적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
 - 또한 '15년 첫 비행을 목표로 375기를 수주한 일본 국산여객기 MRJ의 실험용 기체를 제조, 강도 평가 등을 진행

<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중점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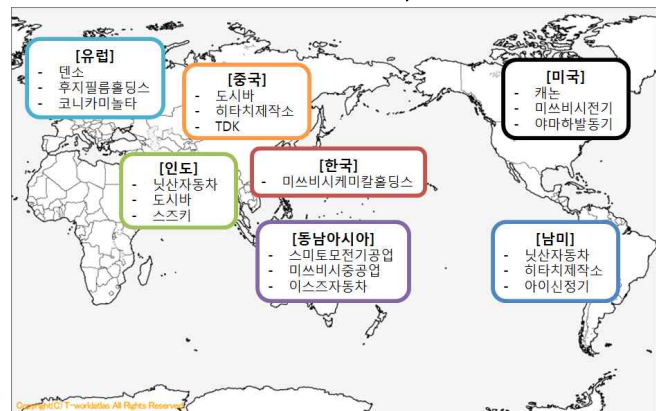
도요타자동차	연료전지, 안전운전 지원 기술, 파워 반도체의 생산 공정 확립	소니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반도체
혼다	연료전지차의 실용화, 해외 현지용 차종 개발, 안전운전 지원 기술	파나소닉	에너지절약 시스템, 자동 운전차량 센서 기술
닛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 연료전지, 안전운전 지원 기술	덴소	고효율 연비 자동차부품, 충돌 방지 기술
스즈키	경자동차·소형자동차의 연비 성능 향상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고효율 화력 발전, 빅 데이터 관련, 수소 에너지
미쓰다	고효율 차세대 엔진	히타치제작소	교통 시스템, 에너지, 빅 데이터 관련
미쓰비시자동차	전동차량의 차종 확충	다케다약품공업	당뇨병, 우울증, 암을 대상으로 한 창약
후지중공업	미국 연비규제에 대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개발	캐논	나노테크놀러지, 로봇
고마츠	IT를 활용한 차세대 건설기계의 개발, 배출 가스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다케다약품공업	재생의료, iPS세포를 사용한 신약의 화합물 후보의 모색

□ 해외 연구개발 거점 강화

- 해외에서 연구개발 체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며 연구소나 개발 센터를 신설·증강하는 기업이 전체의 20%

- 분야별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기업의 48.1%, 소재, 전기·IT 기업의 약 20%가 해외 거점 강화를 계획
-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와 미국으로의 진출이 많았고 자동차기업은 인도, 소재·부품기업은 유럽을 선호

< 해외에 R&D 거점을 신설, 강화하는 기업 >



-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제품 개발의 현지화를 추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각국의 대학과 연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확보도 추진
- 예를 들면 도시바는 베트남이나 인도에 있는 거점을 확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IT 기술자 육성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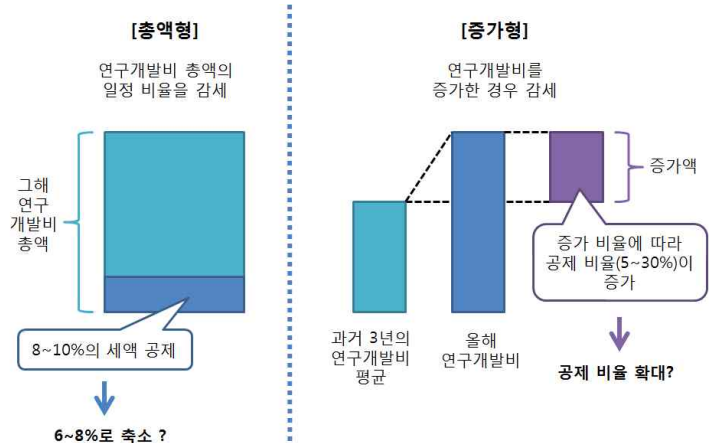
- 히타치제작소는 에너지·환경이나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동남아나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거점을 강화
- 미쓰비시전기는 중국의 지역 통괄 기업에서 산학 연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리고, 현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
- 미쓰비시중공업은 '13.10월 싱가포르에 현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전문 직원을 파견, 중국에서는 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이나 파워 반도체 등 전력기기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칭화대학교에 위탁
- 또한 후지쓰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온라인 학습의 기반 기술을 공동연구하고, NEC는 네트워크 기기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SDN」 기술이나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구미의 대학과 진행하는 등 선진국에서의 산학 연구도 활성화

□ 연구개발 지원 감세 재검토

- 일본정부는 '15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감세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의 감세를 강화할 예정

- '15년도부터는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킨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하는 「증가형」을 적용하여 증가비율이 5% 이하도 감세를 적용하거나, 법인세로부터 최대 60%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한편 연구개발비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총액형」은 감소비율을 축소



* 연구개발 감세 제도는 1967년에 증가형이 도입되어 '03년도에 총액형이 추가됐으며, 기업은 기준만 충족시키면 어느 형태를 활용해도 상관 없음

** '12년의 적용 건수는 총액형 8,836건(감세액 3,686억 엔), 증가형 2,210건(173억 엔)

- 이미 연구개발비가 높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기업은 감세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연구개발 감세 제도의 이용 기업의 약 80% 이상이 제조업이고 특히 화학공업이나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이 절반을 차지함
- 일본정부는 현재 약 35%의 법인세율을 '15년도부터 수년에 걸쳐 20%대까지 인하시킬 방침이며, 재무성은 연구개발 감세를 축소시켜 법인세 인하의 재원을 보완시키는 것을 검토 중

□ 시사점

- 연구개발비 증가로 일부 기업들은 이익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성장을 고려한 전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미쓰비시케미칼홀딩스는 삼남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삼양화성이 생산하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인수권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소재 분야의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음
- 일본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업종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IT 등이므로 이 분야는 우리도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아시아뿐만 아닌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거점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일본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할 전략이 필요
- 감세 제도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일본 중소기업과의 연계나 우리나라 대학 간 연계의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4.6.15, 8.13/17)

[참고] 주요 기업 연구개발투자비용

순위 (전년도 실적)	기업명	연구개발비 (억엔)	증가율 (%)	순위	기업명	연구개발비	증가율
1 (1)	도요타자동차	9,600	5.44	26 (27)	마쓰다	1,000	0.60
2 (2)	혼다	6,450	1.72	27 (26)	NTT도코모	990	-2.98
3 (3)	닛산자동차	5,000	-0.12	28 (26)	스미토모전기공업	980	-1.51
4 (5)	소니	4,850	4.07	29 (39)	미쓰비시중공업	904	39.89
5 (4)	파나소닉	4,800	0.25	30 (28)	브리지스톤	900	1.01
6 (6)	덴소	3,900	5.77	31 (29)	야마하발동기	840	10.38
7 (9)	도시바	3,700	12.29	32 (33)	아사히카세이	820	15.33
8 (7)	히타치제작소	3,550	1.02	33 (38)	이스즈자동차	760	14.11
9 (8)	다케다약품공업	3,500	2.47	34 (32)	코니카미놀타	750	5.36
10 (10)	캐논	3,100	1.20	35 (42)	후지중공업	740	23.13
11 (11)	NTT	2,400	-4.00	36 (34)	다나베미쓰비시제약	730	3.69
12 (12)	후지쓰	2,300	3.93	37 (36)	미쓰비시자동차	720	6.67
13 (13)	아스테라스제약	1,980	3.42	37 (37)	올림푸스	720	7.79
14 (15)	미쓰비시전기	1,930	7.88	39 (40)	고마츠	710	10.11
15 (14)	다이이치산쿄	1,820	-4.82	40 (30)	니콘	700	-6.11
16 (-)	* 오츠카홀딩스	1,800	-	40 (35)	다이니혼스미토모 제약	700	0.28
17 (16)	후지필름홀딩스	1,650	0.39	42 (41)	TDK	680	7.28
18 (17)	아이신정기	1,500	3.95	43 (44)	무라타제작소	600	9.79
18 (18)	NEC	1,500	5.12	44 (43)	도레이	590	6.31
20 (19)	스미토모화학	1,450	2.62	45 (45)	* 기린홀딩스	581	7.35
21 (21)	샤프	1,400	5.96	46 (31)	닌텐도	570	-20.54
22 (20)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	1,340	-0.22	47 (49)	교세라	540	10.59
23 (23)	스즈키	1,300	2.29	48 (46)	시오노기제약	520	0.15
24 (22)	에자이	1,215	-6.93	48 (47)	세이코엡손	520	2.97
25 (24)	리코	1,210	4.13	48 (54)	히노자동차	520	12.31

주 : 2014년도 계획. () 내는 전년도 실적. 연결이 기본. *는 추정치. -는 결산기 변경.

오츠카홀딩스는 9개월분의 수치.